

NOVEMBER+DECEMBER 2010

Vol.330 November+December

세 오 가 조

세 상 을 아 름 답 게 하 는 사 람 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Vol. 330
November¹ December 2010

Contents

Special Theme

02	프롤로그	통通하였느냐?
04	소통의 시대	통(通)하지 않으면 통증(痛症)이 온다
06	혁신활동	세아에샵의 Work Smart 활동

세아

08	SeAH Inside	세아홀딩스, 광산 개발 MOU 및 광양합금철 주주협약 체결 2010 부품소재기술상 시상식 세아제강 창업회장 故 이종덕 명예회장 10주기 추모식 교토 기업을 통해서 본 지속 성장의 길 제3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 세아의 新 Brand Film, 'Better Tomorrow'
18	Global SeAH Report	우수한 품질은 언제나 성공한다
20	SeAH Spotlight	세아홀딩스 전략팀 남상욱 수석

세아인

24	Open your Team	세아제강 판재사업부 설비팀
28	BEST 인물열전	1년차 신입사원들의 좌충우돌 사회 적응기
32	행복한 나들이	강남도시가스 영업관리팀 공영욱 과장 가족
36	세아가 응원합니다	현철 206회 달성한 한국번디 이해진 사우 세아베스틸 임직원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세아제강 포항공장 사랑의 연탄 배달

42	세아뉴스
49	사우동정

SeAH

비전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21세기 세계시장의 주역이 되는 기업

경영이념 세아인은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풍부한 가치를 창조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인류사회에 기여합니다.

〈세아가족〉통권 330호 2010년 11+12월호

발행일 2010년 12월 17일 | 발행인 이운형

발행처 세아그룹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 홈페이지 www.seah.co.kr

기획편집 세아홀딩스 기획본부 02-3783-8163

디자인·제작 하나로에드컴 02-3443-8005 | 표지촬영 다뷰스튜디오 02-766-8025

통(通)하느냐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는 소통은
더욱 단단한 조직을 만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세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세아인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모든 성공적인 미래,
통(通)하면 가능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소원해 질 수 밖에 없다. 기업과 구성원 간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무용지물이기도 하다. 원활한 소통으로 유명한 몇몇 기업들을 통해 어떻게 소통하고, 또 발전할 것인가를 알아보자.

글 ● CEO전기작가 이종진

통(通)하지 않으면 통증(痛症)이 온다

혁신을 위한 밑그림

소통이 되지 않는 기업은 힘없이 스러지고 소통이 잘 되는 기업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으니 현대의 기업 경영 현장은 안성맞춤의 실시간 경영학 교보재다. 극심한 경쟁과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는 법은 구성원과의 소통이 밑그림이 되는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경영학에 대해 글줄이라도 끼적거릴 수 있는 사람들은 너나없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설파한다.

'소통(疏通)'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1번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2번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막히지 아니하고' 와 '오해가 없음'이다. '소통'이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장식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들이다. 가치중립적으로 뜻풀이만 해줘도 좋을 국어사전이 "소통하지 않으면, '막혀서(엄청난 장애를 겪거나 질식하거나)', 혹은 '오해가 생겨서(분쟁과 다툼, 결별의 수순이 기다리거나)' 큰일납니다"라고 친절하게 겁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통만 하면 되는 것일까. 무릇 자연계의 법칙에서는 모든 사물의 변화가 강제로 되는 것이 없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더운 바람은 아래에서 위로 순환되는 것이 순리다.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법

자연스럽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간단하다. 뚫자리를 깔아주면 된다. 이를 점잖게 얘기하면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구글과 IBM, 그리고 삼성토탈이 그 정답을 일부분 제시한다. IBM은 조직 내에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인 '비하이브(Beehive)'를 운영하여 구성원들 간의 친분을 도모한다. IBM 구성원들은 '별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이트를 마치 벌이 자기 집을 드나들듯 부지런히 들락날락 하며 서로 간에 낯을 익히고 있다. 사내 구성원들끼리의 소통공간이지만 공적인 엄숙함은 찾아볼 길이 없다. IBM 직원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다른 부서는 물론 외국 지사에 있는 직원들과도 친구관계를 맺고 비슷한 관심사나 전문 분야를 주제로 대화한다. 비하이브를 이용하는



IBM 직원은 6만 명에 달한다. IBM이 사내 SNS를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이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구글은 가장 즐거운 시간이 간식시간이라는 점에 착안해 정서적 소통을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 저녁 회사 식당에서 최고경영진 중 1명이 반드시 참석해 직원들과 가벼운 음료를 함께 하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TGIF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회사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고 최고경영진은 회사의 현황과 계획을 직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동질감을 높인다.

회사와 직원 가족 간의 정서적 소통 역시 상당히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 직원 가족을 배려하는 소통방법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기여한다. 삼성토탈은 가정과 회사를 결합한 '홈퍼니(hompany) 경영' 개념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사(社)교육이 사(私)교육을 책임진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직원 자녀를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석·박사급 직원들을 활용해 자녀들의 학습을 돕고 있으며 사내 문화센터에서는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양강좌를 개최해 가족들도 회사의 구성원 중 하나임을 강조한다.

기업들은 이 같은 정서적 소통을 통해 구성원들과의 탄탄한 유대를 만들고 그 유대를 기반으로 성공으로 가는 새로운 가교를 놓는다. 오래되고 튼튼한 기업일수록 구성원과의 소통에 힘을 쏟는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대를 위한 구성원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신뢰일 것이다. 마치 사람이 걸어갈 때 두 발을 번갈아 가며 내딛는 것처럼 기업과 구성원 간의 균형 있는 추진력은 그 기업의 건강하면서도 쾌속적인 성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정서적 소통을 통해
구성원들과의
탄탄한 유대를 만들고
그 유대를 기반으로
성공으로 가는
새로운 가교를 놓는다



최근 세아에샵의 화두는 소통과 열정이다. 어떻게 하면 열정적인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최고경영자로부터 시작된 소통에 관한 고민은 최근 들어 이슈가 된 Work Smart 활동에 주목, 2010년 7월부터 사무직 사원들을 중심으로 도입하기에 이른다. 세아에샵의 Work Smart 활동은 조직 구성원들의 열정을 유도하고 참여와 소통을 여는 기회가 되고 있다.

글 ● 세아 ESAB 경영혁신사무국 김영철 팀장



소통과 열정의 기회를 여는

세아에샵의 Work Smart



사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Work Smart 활동

Work Smart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Work hard)이 아니라, 똑똑하고 창의적이며 효율적으로 일한다(Work Smart)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접목한 세아에샵의 Work Smart 활동은 우선 사무직 사원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개선 안건을 매월 2건씩 Work Smart 활동판에 부착하여 개선함으로써,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선 안건 내용은 기존 시스템(업무프로세스) 개선, 부가가치 없는 부분 개선, 직원의 편의 증진 및 복리후생 방안, 고객 만족 향상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 있어 대개는 부담이 없는 작은 개선이나 불합리한 사항들을 바로잡는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세아에샵이 Work Smart 활동을 도입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접수된 안건은 총 427건(2010.11.30 기준)이다. 대략적으로 개인 의견 28%, 업무 개선 20%, 기타 12%, 고객 만족 11%, 커뮤니케이션 8%, 전산 시스템 개선 6%, 매뉴얼 및 표준화 5%, 원가절감 4%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는 3단계 프로세스

Work Smart 활동의 프로세스는 크게 3단계를 거친다. 먼저 2주에 한 번 안건을 제출하면 부문을 비롯한 대표이사의 순회 점검이 진행된다. 물론 사전에 각 안건들에 대한 부문장들의 평가내용이 리플처럼 달려 있어 순회 동안에 안건에 대한 토론과 실행 여부는

신속하게 결정된다. 부문장 및 대표이사의 순회로 직원들의 100%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안전 제출자와 1:1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만들어진다. 제출자의 정확한 설명, 동기, 실행 효과 등에 대해 실무자가 부문을 비롯한 대표이사와 토론하고, 이를 통해 부문장들은 실무자들의 세부 업무를 파악하거나 애로사항을 접하는 소통의 시간을 나눈다. 실무자들 역시 잘못 이행되고 있는 업무 방식을 바로 잡게 되거나, 잘 알지 못했던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실행 안건으로 분류되면 'Very Good!'이라는 대표이사의 안전 실행 격려도장과 함께 제출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트쇼'가 선물로 주어진다. 한편, 순회 단계에서 각 부문을 비롯한 대표이사가 해서는 안 될 말도 있다. "이런 걸 안전이라고 제출했나?", "원래 해야 되는 업무 아니야" 등 비난조의 언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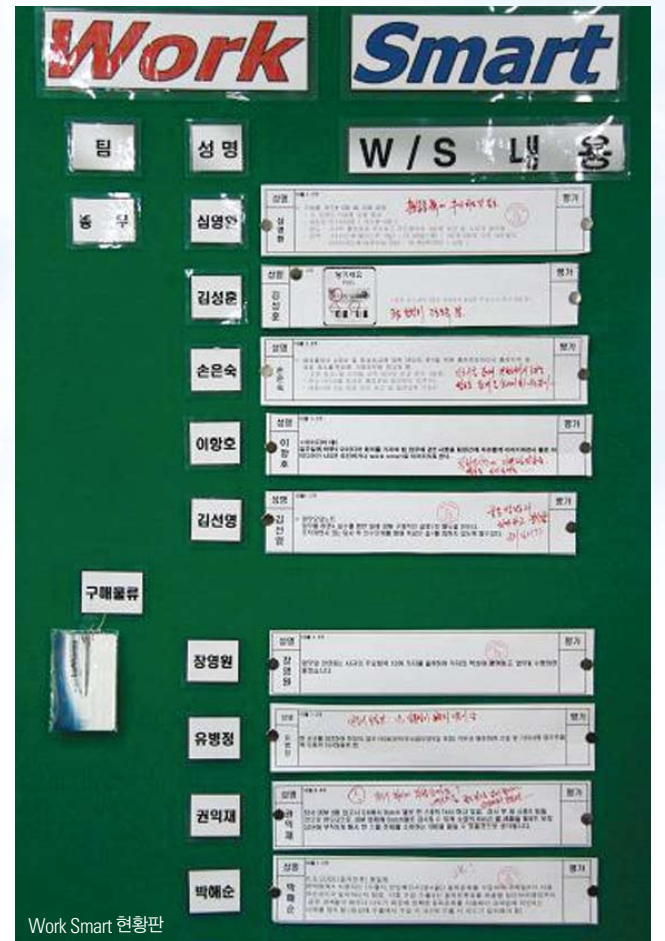
이렇게 Work Smart 대표이사 순회가 끝나면 순회록을 작성해 검토 안전, 우수 안전을 비롯해 순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EGS 전자 결재를 통해 사무직 사원 모두에게 공유된다.

그리고 2단계, 안전관리로 넘어간다. 대표이사 순회가 끝나면 경영혁신사무국에서는 안전들을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1차적으로 안전 종류를 분류한 후, 2차로 관리, 공장, 판매, 연구소 등 해당 부문에 따라 안전을 나누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런 다음 해당 부문장에 전달하여 다시 안전을 검토하게 한 후 최종 실행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안전이 분류되고 정리가 되면 모든 직원들과 공유하고 다음 차수 실행을 홍보한다.

3단계는 바로 안전의 실행이다. 개인 의견으로 분류된 안전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실행한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절감을 위해 외출시 모니터를 끄겠다, 팀의 원활한 지식 공유를 위해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겠다' 등이 그것이다. 각 부문장들에 의해 실행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는 경영혁신사무국에서 특별 관리를 한다. 실행해야 하는 관련 부서의 팀장과 담당자에게 실행 통보를 하고, 실행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다. 안전 내용에 따라 짧게는 하루, 길게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도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한 달에 두 번 실시된다.

Work Smart 활동은 진화 중

세아에샵의 Work Smart 활동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특히 사무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커다란 원가절감이나 개선 효과를 거두는



안은 없지만, 직원들 스스로가 불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는 업무환경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품관리 개선을 위해 제품 생산자 이름의 이니셜을 제품 라벨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출력함으로써 작업시간을 단축시킨 사례나, SAP에 직거래 명세서를 작성할 시 단가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출력하여 수정테이프를 지우고 다시 인쇄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던 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무직원에게 수행하는 정형화 된 반복 업무를 매뉴얼화 하여 현장에 업무를 위임(Power Shifting)함으로써 즉각적인 처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아침 체조와 병행하여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무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이끌어 내는 등 작지만 다양한 안전 실행을 통해서 세아에샵 직원들은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어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만드는 문화를 구축해 나가며 Work Smart 활동을 진화시키고 있다.

Inside #1

세아홀딩스, 광산 개발 MOU 및 광양 합금철 주주협약 체결

세아홀딩스가 몰리브덴 제조업체인 광양합금철을 자회사로 편입한 것과 관련하여 12월 15일 조선포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해외 광물자원 개발 분야 공동 협력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MOU) 및 주주간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세아홀딩스가 12월 15일 광양합금철을 인수하고 광산 개발 MOU를 체결했다. 세아홀딩스가 인수한 광양합금철은 금속광물자원 관련 수출입 업체인 KTC코리아와 정부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각각 55%, 45%의 지분으로 합작투자한 회사이다. 세아홀딩스가 인수한 주식은 KTC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255만 주(51%)를 취득하여 12월 13일자로 주요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세아홀딩스는 광양합금철의 주주로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광산 개발 MOU를 체결함으로써 몰리브덴을 비롯한 국내 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서 만나는 자리에서 세아그룹 이운형 회장은 “양사가 앞으로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여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기념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사장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광물자원공사의 축적된 기술력과 세아의 경영노하우가 효과적으로 결합한다면,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워진 광양합금철의 경영 정상화는 물론, 광산 공동투자 및 개발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광물자원 확보 역시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몰리브덴은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제조에 필수 부원료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철금속으로, 광양합금철은 2007년 준공한 여수공장에서 연산 6,000t 규모의 산화몰리브덴(MoO3), 몰리브덴 브리켓(Mo-Briquette) 및 페로몰리브덴(Fe-Mo)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세아홀딩스는 광양합금철을 인수하면서 핵심 계열사인 세아베스틸이 사용하는 페로몰리브덴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 최적화를 통한 생산 효율성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광양합금철은 동북아시아 제1의 몰리브덴 공급사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세아홀딩스와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의 공동 추진을 위한 양사 간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광양합금철의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 및 공급선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광산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Inside #2

2010 부품소재기술상 시상식

한국번디 전규동 대표 철탐산업훈장 수훈

12월 14일,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R&D 의욕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 열린 ‘2010 부품소재기술상 시상식’에서 한국번디 전규동 대표가 부품소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날 최고의 영예인 철탐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부품소재기술상은 정부가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R&D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시상해오고 있는 포상제도이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2010년 시상식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국내 부품소재기업 대표, EU 대표, 신뢰성평가기관장을 비롯하여 400여 명의 국내외 수요기업 및 부품소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글로벌 리더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상생협력을 위한 네트워킹의 장으로써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비선바하 주한 EU 대사와 장마리 위르피제 주한 EU 상공회의소 회장 외에도 한스-올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 등 EU 측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경환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신소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선도전략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핵심 부품소재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EU와 첨단 부품소재 분야의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장마리 위르피제 주한 EU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주제강연을 통해 “최근 한국의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유럽과 북미의 거대 자동차 회사에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는 등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이번 행사가 한-EU간 부품소재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공유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번디 전규동 대표가 최고의 영예인 철탐산업훈장을 수훈하여 회사의 명예를 빛냈다. 한국번디는 기술장벽이 높은 소재분야에서 자동차용 연료관 및 냉동공조용의 냉각기 등에 적용되는 강관코팅용 친환경 소재와 코팅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세계시장의 0.8%, 국내시장의 42%를 점유하는 등 수입대체효과 및 무역수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총 31명의 유공자가 부품소재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Inside #3

세아제강 창업회장 故 이종덕 명예회장 10주기 추모식



12월 10일 서울 정동제일교회 뽀엘예배당에서는 세아그룹 이운형 회장, 이순형 부회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아제강 창업회장인 故 이종덕 명예회장의 10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故 이종덕 명예회장의 10주기 추모식은 올해가 이종덕 명예회장이 설립한 세아제강이 창립 5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인만큼 서울지역 소재의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세아제강과 세아홀딩스 임직원들로 구성된 성가대가 추모의 노래를 합창하고,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를 모두가 함께 부르며 생전에 고인이 일궈낸 업적과 몸소 가르쳐 주었던 가치와 정신을 되새겼다.

근면함과 성실함을 세아의 밑거름으로

10주기 추모예배의 설교는 고인과 인연이 있었던 조영준 목사가 진행했다. 조영준 목사는 설교를 통해 “돌아가신 명예회장님께서 기업 하나하나가 우량기업으로 성장하면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한다는 사업보국의 신념으로 세아제강을 창업하셨고, 한국 강관산업에 큰 업적을 남기셨으며, 지금도 회장님의 강직하고 겸손했던 인품과 실천력을 떠올리며 많은 세아의 가족들이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일구셨던 회장님을 존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척자적 정신과 근면함 그리고 성실함을 몸소 실천하셨으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회와 나라의 발전을 우선하는 기업인이었다. 시련

을 맞고 있던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이종덕 명예회장님께서 일관되게 보여준 개척자적 정신과 근면함과 성실함은 지금까지 세아가 성장 발전해오는데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도 세아가 세계 속에 우뚝 선 회사로 발전하는 모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유지를 발전시켜 더욱 성장할 것

이운형 회장은 가족인사를 통해 “창업회장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생전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몸소 실천하셨던 성실함, 정도경영의 정신, 겸손한 마음의 기본 덕목들을 잊지 않고 잘 지켜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에게 심어진 이러한 기본 가치와 정신은 많은 역경과 난관들을 이겨내는 세아의 지속 가능한 경영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더 큰 어려운 환경이 와도 세아의 DNA가 된 성실함과 정도경영의 정신, 그리고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적응하는 유연한 자세와 실용적인 사고로 이를 잘 극복하면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창업회장께서 열심히 세아라는 천직에 의지하며 사셨던 분이신 만큼, 세아가족 여러분이 항상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에게서 받은 은혜에 보답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저 스스로는 창업회장님의 유지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故 이종덕 명예회장은 절대빈곤의 시절을 겪으며 온몸으로 터득한 성실함과 근검절약,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용기를 가지고, 전쟁으로 산업의 불모지가 된 이 땅에 현 세아제강을 설립하여 강관산업의 발전에 투신한 경영자였다.

1960년 세아제강의 전신인 부산철관공업주식회사를 창업한 후 국내 강관산업 부흥을 위해 각종 강관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세아를 강관 전문 메이커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1967년 국내 최초로 강관 수출, 1980년 용접강관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API 강관을 개발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길을 활짝 열었다. 1992년에는 세아해암 학술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진취적인 사고와 재능을 갖춘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천했다.

추모식이 끝난 후에는 전·현직 임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아제강 본사에서 故 이종덕 명예회장의 흉상 제막식을 진행하고, 이어 산소로 이동하여 묘비에 헌화하였다.



Inside #4

교토 기업을 통해서 본 지속 성장의 길

세아그룹의 사장단 일행 15여 명이 교토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10월 28일부터 2박3일 동안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된 이번 교토 컨퍼런스는 일본의 장기 불황 속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정상적 자리를 지켜 온 교토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세아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창조적 혁신에 아이디어를 얻고자 추진됐다.

글 ● 세아홀딩스 기획팀 임재원 수석

교토 기업에 주목하는 이유

교토 컨퍼런스는 교토대학 경제학부 스에마츠 치히로 교수의 ‘교토 기업의 불황극복 시나리오’ 특강으로 시작됐다. 스에마츠 교수는 ‘시장이 글로벌화 되고 그 안에서 사람도 글로벌화 되고 있다’며 교토 기업들의 경영 특성을 설명했다. 교토식 경영 모델은 창의와 혁신, 기술력, 독심 경영을 바탕으로 한다. 창업 당시부터 글로벌 시장 개척, 오너의 독심 경영, 실리와 비용을 중시한 무차입 경영 실현, 특화된 기술과 제품에 의한 높은 시장점유율, 열린 수평분업구조 지향과 모듈 경영, 기업대학·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산·관·학 클러스터 형성, 교토 장인 특유의 비판과 혁신적 사고 등이 특징이다.

교토 기업들은 이를 통해 장기적 불황에도 놀라운 성과를 창출했다. 교토의 기업들이 20년간 지속적으로 고성장, 고수익을 창출한 데에는 Top Down과 Bottom Up의 최적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기업으로 다져졌기 때문이다. 특히 교토의 많은 기업들이 모든 사원들과 명확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성장했다는 사실은 비전 공유의 중요성에 주목할 만한 이유가 됐다.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에서 배우는 변화의 중요성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사장단은 교세라를 방문했다. 주택용 태양발전 시스템, 세라믹, 전자정보기기 등 관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교세라는 독립 재산제 운영에 의한 ‘아메바 경영’으로 유명하다. 모든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화 경영 방식과 시간당 재산량을 통해 눈에 보이는 관리 현황을 접하며 사장단은 그 효과나 장단점 등이 이미 세아에서도 추진하는 활동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나누었다. 특히 “나누어도 붙여도 하나가 되는”, 즉 시장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기업도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을 통해 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변화와 도전의 기업문화, 호리바

자동차, 환경·의학, 반도체용 계측기기 제조 및 판매 업체인 호리바 제작용소는 엔진 배기가스 계측기 생산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다. 사장단은 호리바 제작용소 방문으로 의식과 행동 개혁을 촉구하는 기업문화를 접했다. 호리바 제작용소는 ‘즐겁고 엉뚱하게’라는 기업문화를 비롯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타임 원 하프 제도, 블랙잭(Black Jack) 형사 제도 등의 개선활동, 상생을 바탕으로 한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 혁신의 발판을 마련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블랙잭 프로젝트의 경우, 개혁과 개선을 통해 사원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 생산성이나 조직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매니지먼트의 힘을 강화시켜 단순한 개선을 넘어 생각이나 의식의 변혁을 이끌어 냈다. 이는

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 주인의식, 자긍심, 아이디어 창출 등을 끌어내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호리바 제작용소의 마사오 회장이 강조하는 “어제, 오늘, 내일 만드는 제품의 품질은 항상 똑같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최대의 효율과 최소의 낭비를 가장 기본으로 여기며, 실패가 있다고 해도 도전해 보는 정신을 꾸준히 실천해 높은 성장을 일군 부분은 사장단의 큰 이목을 끌었다.

옳다고 생각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교토 기업들

교토 기업에 관한 특강과 기업 현장 방문을 마친 사장단은 토론회를 마친 후 교토를 방문한 소감과 향후 세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 경쟁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운형 회장은 특히 “교세라, 호리바 제작용소와 같은 교토의 기업들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했다는 자체가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것”이라 강조하며, “R&D가 강화된 장점을 가진 기업”으로서 가치를 높이 샀다. 이순형 부회장 또한 “호리바 제작용소의 블랙잭 제도를 통해서 현재 세아의 경영 방식을 재점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세아도 세아만의 고유한 색깔이 담긴 경영철학을 경영 전반에 반영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아그룹 사장단은 R&D 강화의 중요성과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교토 컨퍼런스의 의미를 되새겼다. 나아가 향후 중국시장의 변화가 끼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세아의 사업영역이 철강 및 금속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장기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과제 해결이 절실하며 중국시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Inside #5

제3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

2010년 한 해 전 산업체의 품질경영활동 성과를 결산하는 ‘제3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이 11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자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 세아 ESAB과 세아특수강 충주공장은 품질분임조 활동을 통해 각각 금상과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세아 ESAB 마이다스분임조 금상 수상

현장개선 중소기업 부문

조원: 강정훈(조장), 박준수, 최수환, 윤기덕, 조희동, 김상식, 염동호, 나용봉, 조인호

O/S공정 전단장치 개선으로 부적합품률 감소

FCW(Flux Cored Welding Wire) 제품은 얇은 철판을 튜브 형태로 말아 내부에 플럭스(Flux)를 충전한 최첨단 용접재료이다. 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가장 먼저 거치게 되는 O/S공정을 통해 형성되는 품질의 특성은 최종 완제품의 송급 품질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후공정과정인 성형에서 모관의 진원도와 오브랩 형상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가 되므로 아주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세아에샵의 전처리C팀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O/S공정 중 특히 부적합품률이 높게 나타나는 전단장치에서 발생하는 폭과 에지부의 부적합 유형을 파악하여 각각의 대응책을 세우고, 약 4개월에 걸쳐 개선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성형 모관의 진원도와 심부 오브랩 상태가 현저히 양호해졌고, 재작업으로 발생하는 동작 로스 및 폐기량을 감소시켜 연간 5천만 원 가량의 유형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무엇보다 후공정과정인 성형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자들의 만족도를 높িয়ে 됴므로써 개선활동에 대한 전문직 사원들의 열의까지 배가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게 됐다.

강정훈 조장 수상소감



시상대에 서는 순간, 1년 동안 준비했던 시간 이주마등처럼 지나가 가슴 뭉클했습니다. 오로지 전국대회 금상을 목표로 조원들이 함께 달려 왔습니다. 세아에샵의 개선활동은 품질 향상이나 안전 확보 차원을 넘어 생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여한 조원들의 열성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또, 지금의 마이다스가 있기까지 먼저 길을 닦아주었던, 또 잘 이끌어 주었던 많은 선배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장이 되려고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등대분임조 동상 수상

현장개선 대기업 사무간접 부문

조원: 강항성(조장), 김완중, 황인웅, 안세원, 김태언, 김주현, 정용준, 김진욱, 한상현, 노연욱, 성충훈

산세, 피막 공정 불가동시간 감소로 생산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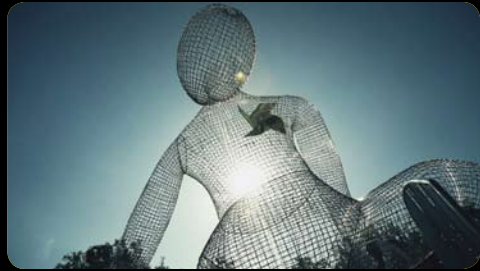
2009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산업의 경기 호조로 CHQ wire 제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던 산세, 피막 공정의 불가동을 줄여 생산량 증대를 추진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산세, 피막 공정 개선에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아웃소싱 업체 위주의 소규모 분임조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세아특수강의 설비와 품질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분임조를 구성했다. 특히 산세, 피막의 중요 설비는 협력업체의 자체적인 조치가 어려워 세아특수강 담당자에게 지원 보고가 불가피하지만, 보고시간이 지연되는 만큼 공정의 불가동 시간도 증가되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설비 불가동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또한 세아특수강의 설비팀을 중심으로 중요 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교안을 제작하는 한편, 고장분석보고서와 사고 사례집을 통해 동일한 문제 발생을 줄이고, 설비의 부분별 중요도 등급을 재설정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예방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설비 보전 인원의 기술력을 향상, 불가동 시간을 줄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였다.

강항성 조장 수상 소감



2010년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된 세아특수강이 충청북도 내 다른 대기업들과의 경쟁을 뚫고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동상을 수상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아특수강 충주공장은 핵심인 열처리 공정과 시험실을 제외한 모든 공정이 소사장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동상 수상은 협력업체와의 공동 분임조를 구성하여 생산성을 높인 결과입니다. 현재 1공장의 증설과 2공장에 대한 신규 투자를 발판으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세아특수강 충주공장은 지속적인 혁신활동과 품질분임조의 현장 개선활동을 통해 ‘선재업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Global Reader’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Inside #6

세아의 新 Brand Film, 'Better Tomorrow'

2011년 1월부터 세아그룹의 새로운 홍보영상이 소개된다. Full HD로 제작된 새 홍보영상은 세아가 만들어 내는 가치들이 세상의 다양한 가치들과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세아의 하모니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세아의 가치에 숨을 불어넣는 세아인들의 다양한 모습 등 세아만의 색깔을 담기 위한 시도와 요소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호감도를 고려한 감성적인 커뮤니케이션

세아그룹의 이미지를 전달하게 될 새로운 홍보영상은 인지도와 호감을 높이기 위해 주목할 만한 요소를 통하여 영상 자체가으로도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Brand Film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 제품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던 브랜드 마케팅의 적용 범위가 기업의 브랜드, 더 나아가 국가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홍보영상은 보는 이들과의 소통을 이루어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심는데 주력했다.

따라서 기존의 영상이 사실과 논리적인 메시지 중심으로 표현했다면, 새로운 영상은 세아가 만들어 내는 가치들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공감할 만한 감성적인 접근에 초점을 두었다.

철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Value Creator, 세아

지나온 역사와 오늘의 모습이 그러하듯 세아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크기보다 내실, 즉 가치의 크기를 존중함으로써 오늘날의 위상을 일구어 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가치에 가치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며 궁극적으로 'Better Tomorrow'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아의

궁극적인 목표에 주목하여 새 홍보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

그 속에는 모두가 가능성이라고만

비로소 현실화해 가고 있으며, 그것

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전하고, 또한 함께 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더 큰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세아의 모습이 그려진다. 또한, 이러한 세아를 이루는 DNA가 세아의 가족들인 만큼, 고객들을 향해 지금보다는 더 즐겁고 더 행복한 내일을 제안하며, 또 고객들로 하여금 내일에 대한 더 큰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세아인들의 모습을 담았다.

일반 홍보영상과는 차별된 Music Essay 형식

새로운 홍보영상의 목적이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을 얻어내기 위한 감성 자극에 있는 만큼 구성의 형태에서부터도 차별화 요소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새 홍보영상은 일반적인 국내 기업의 홍보영상에서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Music Essay 형식을 빌어 총 4악장에 걸친 음악 연주와 함께 세아의 스토리로 전개된다. 물론 4악장으로 구성된 음악은 세아만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음악이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세아

그룹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우들이 직접 출연하여 의미를 더했다.

1악장은 For Better Tomorrow라는 주제로 세아그룹의 역사와 경영철학의 상징적인 메시지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2악장은 Happy Tomorrow라는 주제로 세아그룹이 함께 하는 즐거운 생각들과 행복한 리듬을 전달한다. 3악장에서는 Reliable Tomorrow라는 주제로 세아그룹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들을 소개함으로써 세아와 함께 하는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한다. 마지막 4악장에서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사회에서 더 나은 포부로 사회를 만들며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수출시장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품질보다 가격을 내세운 업체들은 많았다. 확연히 보이는 가격차에도 수많은 바이어들이 세아와 함께 손을 잡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 때문이다. 자랑스러운 세아의 이름 앞에 나는 세계 어디서나 당당해질 수 있다.

우수한 품질은 언제나 성공한다

글 ● 세아메탈 수출팀 김재상

달랑 지도 한 장과 험혈단신으로 방문한 홍콩

‘처음’이라는 말에는 항상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미지의 대상을 알게 되는 데에 따른 호기심이나 두려움, 그리고 두근거림.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아 가족이 된 지 1년 여, 고대하던 해외 출장지는 홍콩이었다. 그동안 이메일이나 국제전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던 바이어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게 된다는 점에서 두근거렸으나, 난생 처음 가보는 나라로의 첫 해외출장이라 걱정이 앞섰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도 컸지만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할 말은 다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2010년 3월, 드디어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홍콩 땅을 밟았다. 지도 한 장과 예전에 남겨져 있던 기록들, 그리고 사전에 바이어들과 연락하여 얻은 주소에만 의지하여 4일간의 일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우리 제품의 품질에 만족하십니까?”

2009년, 경기가 하락하면서 수출 시황이 굉장히 나빠졌고,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해 오던 바이어들조차 품질보다는 무조건 낮은 가격을 원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꾸기 시작했다. 특히 홍콩 시장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밀접하여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시장을 대규모로 잠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근래 들어 수주가 뜸해진 업체들을 선정하여 각 업체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번 출장의 목적이었다.

홍콩시장의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금융 위기에 의한 여파가 우리나라보다 한 발 늦게 시작된 탓에 우리가 한창 수출을 회복하는 시기에 홍콩 업체들은 불황의 여파가 남아 수입이 쉽지 않았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 내수경기 회복을 우선으로 한 집중적인 내수 경기 부양정책에 힘입어 내수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반면, 수출입 시장은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또 하나의 악재는 대만이었다. 최근 대만제 제품의 품질이 크게 향상됐고, 예전과는 달리 대만 정부와 중국 간의 사이가 좋아져 대만제 와이어의 시장 유입이 크게 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진땀이 나기 시작했다. 상담 초반부터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무엇보다 이야기하면 좋을지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그 걱정도 잠시, “우리 제품의 품질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상황을 반전시켰다.

제품에 대한 믿음이 가져온 성공

첫 날 방문했던 업체의 경우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대만제 제품을 늘렸다. 그 기준은 가격이었다. 세아의 제품은 품질에는 매우 만족하나 가격이 높았고, 대만제품은 가격은 만족스럽지만 품질이 문제였다. 특히 까다로운 요구가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항시 클레임이 생긴다고 했다.

업체로부터 들은 대만 업체와의 가격 격차는 약 10%. 이 차이를 최소화할 수만 있다면 다시 수요를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었다. 따라서 격차를 최소화한 가격을 제시하고 클레임 발생 시에 잃을 수밖에 없는 기회비용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 이때의 적극적인 설득이 유효하여 대만으로 나가려던 주문을 일부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었고, 이를 축으로 삼아 현재까지 2008, 2009년에 받았던 주문량의 2배를 수주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고 당당히 업체들에게 반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주문서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근래 들어 중국시장은 또 한 번 변화하고 있다.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했으나 임금 현실화 등을 이유로 중국 제품의 단가는 점점 오르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 단계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품질을 더욱 갈고 닦는다면 그동안 가격을 이유로 빼앗겨 오던 시장들을 회복할 기회가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나 역시 그 기회 순간을 세아 가족들에게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열심히 갈고 닦을 것이다.



유쾌하게 투자를 배달한다

나상욱

세아홀딩스 전략팀 수석

가족들이 오순도순 식탁에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저녁식사를 하는 황금 시간대, 텔레비전에 깜짝 출몰하여 직원 가족들을 놀라게 한 주인공이 있다. 항상 밝게 웃는 얼굴로 세아홀딩스를 유쾌한 분위기로 띄워주는가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유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남상욱 수석은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유연한 사고로 세아홀딩스의 유쾌한 아이콘이 되고 있다.

1. 전략팀에서 하는 일

신규 사업 개발 및 투자 검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유연탄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원산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가장 큰 이슈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인도네시아 유연탄 광산 사업투자 건이 여러 가지 현지 요인으로 인해 진행이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국가별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필요성과, 프로젝트 진행 시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3.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TV 출연 이야기

첫 TV출연은 대학 시절부터입니다. 1993년 '열전 달리는 일요일'을 시작으로 같은 해 'TV 챔피언', 1999년 '사랑의 스튜디오', 2002년 '황금열쇠', 2008년과 2010년 '1대 100',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방영된 '우리말 겨루기'까지 총 7번이군요. 최근에 참여하게 된 '우리말 겨루기'는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올해 7월부터 새로 합류한 세아홀딩스 동료들에게도 좋은 인상도 심어주는 한편, 업무에도 보다 강한 자신감을 갖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1차는 인터넷 응모, 2차는 필기시험, 3차 제작진 면접에 이르는 과정을 운 좋게 통과했습니다. 워낙 우리말에 대한 출제 범위가 넓어서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하고 녹화장에 가면서 '제발 아는 문제만 나와라'고 빌었죠. 다행히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했습니다.

4. 방송 출연 후 주변의 반응

방송이 나간 후에 건물 관리실 아저씨도 얼굴을 알아봐요. 자주 가는 식당이 아니었는데도 주인 아저씨까지 방송 잘 봤다는 인사를 하는 등 다시 한 번 공중과 방송의 힘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마지막 문제에서 떨어져 너무 아깝다고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TV로 본 제 모습이 너무 뚱뚱해 보여서 살부터 빼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5. 아이디어가 많기로 소문이 자자하신데,

아이디어가 많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열린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덕분에 오지랖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만의 틀 속에서 갇힐 가능성이 많은데,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며 여러 의견에 대해 공감하다 보니 생각이 유연해지고 다양해진 게 아닌가 합니다.

6. 목표를 달성하는 나만의 노하우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목표한 것을 주변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했다면, 달성 가능한 목표(HSK 6급)와 그 목표를 달성할 기간(2010년 이내)을 정한 다음, 결심과 목표를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에 계속 알립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꼭 참고 목표를 향해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세아제강 구매팀에서 근무하던 시절, 거래처 직원이 이 방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온 적이 있습니다.

7. 앞으로의 바람이나 목표

세아홀딩스 전략팀에서 신사업 개발 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가시화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죽기 전에 영화 한 편을 꼭 찍고 싶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담고 싶어요.

Profile

이름 | 남상욱

별명 | 터프가이. 개인적으로 밀고 있는 별명입니다. 아직 주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멋진 터프가이가 될 겁니다.

좋아하는 것 |

1. 야구: 좋아하는 팀은 두산베어스이고, 세아제강 본사 야구동호회인 세아볼스에서 2루수로 뛰고 있습니다.

2. 영화: 요즘은 아이들 때문에 자주 영화관에 가지 못하지만, 영화 속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간접 체험하는 게 좋습니다.

싫어하는 것 | 계피가 들어간 음식

인생의 모토 | 가훈인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다”와 좌우명인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에는 귀천이 없으므로 누구나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음을 이릅니다.



남상욱 수석에게 힘이 되는 다섯 가지



하나. 나의 에너지, 가족 당연히 미스코리아 뽐치는 외모의 아내와 씩씩하고 용감한 딸, 그리고 집안의 애교와 귀여움 담당인 아들! 가족으로부터 모든 에너지가 나옵니다.



둘. 세아홀딩스 환상의 팀워크로 월요병도 없이 회사에 빨리 가고 싶어서 일요일을 지루하게 만드는 이태성 팀장님과 전략팀 식구들, 그리고 다른 모든 세아홀딩스 가족입니다.



셋. 두산베어스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가르쳐준 '두산베어스' 야구단. "Hustle Doo"라는 응원구호와 함께 매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넷. 아내의 선물, 아이그너 세컨백 아내가 연애시절 절 괴시기 위해 선물했죠. 혹자는 사채업자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물건을 주머니에 넣기 싫어하는 탓에 항상 들고 다녀서 지금은 제 트레이드마크가 됐습니다.



다섯 핸드크림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양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핸드드라이어로 뽐뽐뽐 말리면 차진 기분도 다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늘 핸드크림도 준비합니다.



따뜻한 그 이름, 세아

어느덧

2010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 힘든 일 늘 함께 해온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겨운 동료들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담아 마음을 전합니다.



최고를 향한 집념과 노력

세아제강 판재사업부 설비팀



세아제강 판재사업부가 있는 군산공장은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2CCL의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2CCL을 통해 세아제강은 알루미늄 광폭재와 가정용 특수 소재 위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급 사양의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새로운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현장의 중심에 설비 테스트와 각종 실험으로 본격적인 생산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설비팀이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비상하는 설비팀

세아제강 군산공장에서는 건축자재나 가전제품의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아연도금강판과 컬러강판 등 판재제품을 생산한다. 판재제품은 산세(CPL), 압연(CRM), 용융아연도금(CGL), 컬러도장(CCL) 과정 등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핵심 설비들을 비롯해 각종 부대설비, UTILITY 설비 등의 보전과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설비팀이다. 세아제강의 판재제품들이 군산공장의 최첨단 자동제어시스템이 적용된 설비를 통해 생산되는 만큼, 최적의 상태에서 최상의 품질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설비팀의 기술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설비팀 구성원 모두는 국가 인증 자격증을 습득하며 전문 기술자로서 능력을 배양해왔다.

신규 설비의 증설 또한 설비팀의 몫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2CCL 도입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비 증설은 군산공장의 성장과 직결된 과제 중의 하나이다. 1997년 #1CCL(칼라도장설비) 설치를 시작으로 2006년 CGL, CRM, CPL 도입, 나아가 #2CCL 설비를 거쳤다. 현재 심

1,600mm의 대폭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저가의 컬러강판 제품 생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창출을 실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설비팀은 지금까지 축적한 전문적인 기술과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설치와 시운전을 진행함으로써 최적의 설비비를 투자하여 100% 설비 국산화를 실현시켰다. 2010년 4월 설치에 들어간 #2CCL은 10~11월 시운전, 12월 시험 생산을 거쳐 2011년 1월 본격적인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계획보다 3개월이나 단축된 순조로운 진행은 설비팀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땀의 결실이다.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집념

설비의 유지와 보수를 책임지는 설비팀에서는 작은 일이라도 세심한 검토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가 끊임없다. 설비팀 구성원들은 언제나 최고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무엇보다 품질과 생산성 향상,ロス 절감을 통한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무결점을 목표로 설비 성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에는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팀원들 각자가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끝까지 파고들어 해결, 개선하려는 노력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적당히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열정적인 팀 성격 덕분에 늦은 밤까지 사무실은 불이 환하다. 밤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진행되는 날이 잦아 피곤함을 호소할 법한데도 설비팀원들은 마라톤 회의도 마다 않는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의 희열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인내는 희열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와도 같기 때문이다.



세아제강 판재사업부 설비팀 이승정 팀장

“최상의 품질을 위한 땀과 열정”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2CCL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원이 다소 적은 편이라 팀워크가 더 탄탄한 것 같습니다. 팀원 전체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자격증을 한 개 이상은 다 취득하고 있죠. 타 경쟁업체보다 기술적 부분에서 우위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늘 고장제로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팀원들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원 운영으로 더 강한 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죠.

긍정적이고 능력있는 팀원들 덕분에 언제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너무 일에 몰두하는 팀원들의 건강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업무에도 더 매진할 수 있으니까요. 다가오는 2011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문제의식과 해결과정을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생산체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 개선과 최적의 비용으로 제품 생산이 가능한 설비 개선에 주력할 것입니다.

INTERVIEW

Happy New Year

세아제강 판재사업부 설비팀

이동철 대리

기계담당 선임으로 CCL과 CGL을 담당한다. 풍부한 기계이론을 바탕으로 원칙을 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기계 엔지니어이다. 문제점을 끝까지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

김보건 조장

전기 PLC/DRIVE SYSTEM 부분의 최고 기술 보유자. 전기 파트 조장으로 현장 전기 실무를 책임진다. 수많은 문제에도 항상 열정적으로 도전하여 결국 해결하고 마는 악바리이다.

박근길 조장

기계 파트 조장으로 현장 기계 실무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진정한 실력자. 여기 저기 필요할 때면 항상 달려가는 만능 해결사이다.

홍준오 과장

전기담당 선임으로 군산공장의 전기 수배전과 핵심 설비인 CGL 전기 파트의 보전 및 개선을 담당한다. 언제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꼼꼼한 성격으로 한수 한수 장고에 묘책이 나올 때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이승정 팀장

설비팀의 선봉,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군산공장의 효율적인 생산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방향으로 이끈다. 항상 밝은 웃음으로 많은 직원들을 보듬어주고 있다.

박성만 대리

CPL, CRM, CCL의 전기를 담당하고 있다. 군산공장 최고의 전기 엔지니어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업무 추진력과 노력을 쏟고 있다.

김상기

설비팀 막내, 산세라인과 압연 MILL, 부대설비 기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항상 밝은 얼굴로 팀의 분위기를 살리는 분위기 메이커이다. 일뿐만 아니라 집기에 능한 만능 재주꾼.

임재훈 전문직 팀장

공장 전체의 설비보전 업무와 전문직 팀원들 관리를 맡고 있다. 동네 형 같은 친근한 이미지로 젊은 팀원들과도 스스로없이 어울리며 기계와 전기 파트 전문직 팀원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가 되어 주고 있다.

여주환 과장

Part Leader로 #2CCL Project를 전담하고 있다. 이른 새벽, 배드민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형 인간으로 배드민턴을 통해 나오는 강한 에너지를 업무에 쏟으며 일을 추진해 나간다.

1년차 신입사원들의 좌충우돌 사회 적응기

‘20대의 절반이 백수’라는 이 시대에 힘든 취업문을 뚫고 세아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어떤 각오로 일하고 있을까. 지난해 말 입사해 만 1년의 회사생활을 맞는 2009년 공채. 입사 직후 겪었던 어려움, 잊지 못할 사건, 어떤 세아인이 되고 싶은지 등 그들이 남긴 그들의 현재 모습과 좌충우돌 회사생활 적응과정을 들여다본다.

능청스런 질문투성이 신입사원

세아베스틸 주조팀 양길용



1.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아직은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주조팀에서 용해, 정련, 조괴까지 전체적인 업무를 배우는 중입니다. 그 중 150t 전기로에 큰 비중을 두고 용해 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 입사 후 가장 힘들었던 일

4월에도 눈이 내리는 군산 날씨입니다. 군산의 봄, 가을은 런던의 하늘 같이 하루에 사계절이 다 담긴 듯 변덕이 심합니다. 여름은 고온고습의 열대성 기후를 보이다가, 또 겨울이 되면 일주일이 넘게 눈이 내리는 날이 이어집니다. 초봄에도 겨울날씨나 다름없어서 속에 타이즈나 내복이 없으면 현장에 나가는 일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군산 날씨가 친숙하진 않지만, 차차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3. 입사 1년차, 지금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기계와 설비 분야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설비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사무실과 현장에 노련한 엔지니어 선배님들이 많이 있어 의지를 하며 배우는 입장이지만, 저도 꼭 엔지니어다운 지식과 시야를 넓혀갈 생각입니다.

4. 잊고 싶은 사건

입사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회사 동기들이나 직원들에게 찾아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무례했던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5. 이것이 있어서 회사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능청스런 성격 탓인지 아니면 막내라서 그런지 “이게 뭐죠?”, “왜 이런거죠?” 등 “왜?”라는 질문을 자주하는데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6. 자신의 팀에서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고 싶은가요?

“신입사원다운 신입사원”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신입사원답게 열심히 하고, 신입사원처럼 성실하며, 신입사원같이 의욕이 넘치는 양길용이고 싶습니다.

남녀를 구분하는 직업은 없다!

세아베스틸 품질보증팀 정서연

1.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세아베스틸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고객이 요구하는 시험을 하고 제품의 적합 판정을 위한 시험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입사 후 가장 힘들었던 일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두고 혼자 타지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함께 있지 못하고 멀리서 안부전화 밖에 할 수 없어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정말 컸지만, 늘 말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3. 입사 1년차, 지금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품질보증 시험센터를 관리하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설비들의 작동법 등이 아직 미숙합니다. 처음으로 보는 설비도 많았고,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구입하는데도 용도를 정확히 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품질보증 시험센터 관리자로서 모든 시험 장비를 완벽히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잊고 싶은 사건

입사 초에는 건물의 매 층마다 여자화장실이 있는 줄 알았어요. 더구나 멀리서 보면 남, 여 표기가 잘 보이지 않아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로 향했죠. 화장실에서 만난 00팀 과장님이 “여기 남자화장실이야”라고 해서 얼굴이 빨개져 황급히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5. 이것이 있어서 회사생활에 잘 적응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1000명에 가까운 남자 직원들만 있는 철강회사에 여자로서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어렵다고 뒷걸음질 치는 것보다 부딪혀 보자는 결심으로 세아베스틸에 입사했습니다. 그 결과, 세아베스틸 품질보증팀의 홍일점으로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6. 자신의 팀에서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고 싶은가요?

입사한지 1년,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전진하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팀원이 아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말은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노력파 신입사원이 될 것입니다.



“저 사실 술 못마셔요”

세아특수강 수출팀 박규현



1.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세아특수강 수출팀의 일원으로 세아특수강 제품의 경쟁력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널리 알릴 수 있는 수출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2. 입사 후 가장 힘들었던 일

입사 후 실수 때문에 소심해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고는 하나, 실수가 반복되자 스스로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3. 입사 1년차, 지금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신입사원 면접 시 주량을 소주 2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술을 잘 마

시는 신입사원’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실체가 주당이 아닌 허당으로 드러났지만, 선배님들이 적당히 조절하며 마실 수 있도록 챙겨주어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술을 잘 마시며 즐기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적응이 잘 안되네요.

4. 잊고 싶은 사건

회사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회사 현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순간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이 꼬이고 말문이 막혀 당황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다행히 팀장님께서 자연스럽게 프리젠테이션을 이어 가신 덕분에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던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5. 이것이 있어서 회사생활에 잘 적응 하고 있다!

선배님들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면 짜증내지 않고 잘 가르쳐 주고, 엉뚱한 질문을 해도 웃으며 넘겨주는 선배님들이 있어 회사 생활이 즐겁고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 하고 있습니다.

6. 자신의 팀에서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고 싶은가요?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2, 3배로 일이 커져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때 이것을 잘 챙겼더라면...”이라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본이 잘 갖춰진 사람

세아특수강 생산팀 한주호

1.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세아특수강 생산팀 봉강파트에서 생산관리를 배우며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2. 입사 후 가장 힘들었던 일

막 입사를 했을 무렵,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더딜 때도 있고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아직도 어렵다고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입사 1년차, 지금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입사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첫 출근을 하여 팀의 막내로, 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사회인이라는 자격으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분주했던 일상이 바로 어제 일 같습니다.

4. 잊고 싶은 사건

신입사원 환영식이 끝나고 숙소로 들어와서 구두를 벗자마자 같은 숙소에 있는 선배님한테 꽤 강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발 냄새가 심하네. 바로 가서 씻어야겠다”라고 하시더군요. 처음 얼굴을 마주한 날 그런 지적을 들으니 꽤 창피했었습니다.

5. 이것이 있어서 회사생활에 잘 적응 하고 있다!

회사의 여러 선배님들이 잘 가르쳐 주고 다독여 준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정말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배운 것을 가슴에 잘 새겨 저 또한 동료와 후배들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6. 자신의 팀에서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고 싶은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초등학교 도덕책에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불어 살아야 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솔선수범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이 잘 갖춰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1월은 아쉽다. 곧 한 해가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짧게만 느껴지는 초겨울. 12월의 화려함보다는 조금 소소하지만 겨울을 느끼기는 충분하다. 쌀쌀한 바람을 코 끝에 느끼며 공영육 과장 가족이 찾아간 곳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온천의 명소로 불렸던 이천이다. 뜨끈한 겨울 나들이를 위해 바쁘기로 소문난 공영육 과장 가족 네 사람이 어렵게 시간을 맞췄다.

강남도시가스 영업관리팀 공영육 과장 가족의 뜨끈뜨끈한 겨울나기



나들이 날을 잡는다는 게 그만 수학능력시험일이 됐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교외의 날씨는 찬바람이 뽕뽕 불었다. 짙은 안개가 서울부터 경기도 이천까지 짙었다. 춥고 안개서린 날에도 어울리는 나들이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온천'이 아닐까? "아이들이 물놀이를 좋아하는 탓에 기대가 컸어요. 저도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도 풀고 좋을 것 같았죠." 공영육 과장 가족의 얼굴에 즐거움이 묻어난다.

따뜻한 겨울 나들이, 온천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이천. 이천 테르메덴 앞의 공 과장 가족은 단연 눈에 띄었다. 이날 행복한 나들이를 위해 특별히 체험 학습으로 학교 수업까지 빼고 놀러온 큰 딸 지현이(8)는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에 놀러왔다는 생각에 그저 즐거운 눈치다. 티켓을 손에 쥐고 흔들며 보이는 게 영락없는 애교덩어리다. 동그란 얼굴과 새침한 눈매 때문에 피겨선수 김연아를 닮았다는 소리를 곧잘 듣는다. 동생 은찬이(7)와 알록달록 색깔을 맞춰 입은 모습이 귀엽다. 티켓을 꿔고 드디어 온천으로 출발! 엄마는 지현이랑, 아빠는 은찬이랑 짝을 이루어 탈의실로 향했다.

온천으로 들어가면 마치 그리스의 신전에 온 것처럼 넓은 실내 풀이 펼쳐진다. 차가운 바깥 공기와는 달리 후끈한 기운에 몸의 긴장





이 천천히 풀린다. 엄마 아빠를 꼭 반반씩 닮아 인형처럼 예쁜 남편도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다.

아이들의 키에는 조금 깊은 듯한 풀이라 구멍조끼를 입었다. 큰 딸 지현이는 “입기 싫은데...”하면서도 곧잘 입고, 은찬이는 불편한 지칭얼댄다. 따뜻한 물에 들어가자 언제 짜증을 냈냐는 듯이 활짝 웃는다. “자 아빠가 들어서 저 끝까지 옮겨다 줄게!” 놀이기구가 따로 없다. 두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는 품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야외 온천에서 물장구를 치며

안개는 쉽사리 걷히지 않았다. 그러나 온천을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다. 13만 평의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다는 온천의 전경은 안개 덕에 신비로움마저 더하는 듯 했다. 야외 온천으로 이어진 출구로 나오면 바로 앞에 정자탕이 보인다. 한옥의 정취를 담은 지붕들이 나란히 섰다. 아이들은 춥다며 얼른 노천탕으로 뛰어 들었다.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두 아이가 아빠를 상대로 물장구를 친다. 아빠는 물안경도 끼고 전투태세, 엄마는 “내가 아빠 도와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저에겐 정말 소중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여행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줘야지!”하면서 아빠 편에서 열심히 물을 뿌려 보지만 아이들 실력에는 한참 못 미친다. 언제 물장구를 그쳤는지 어느새 아빠 등에 매달린 지현이와 은찬이, 엄마. 세 사람의 무게에 “아이고, 아빠 죽겠다”하고 아빠가 울상을 짓는데 셋은 까르르 웃느라 신이 났다. 보기만 해도 즐거운 광경에 놀러온 다른 사람들도 절로 미소를 짓는다.

나무로 둘러싸인 온천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숲 속에서 온천을 즐기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 일으킨다. 온천을 가로지른 아치형 다리를 건너면 신나는 슬라이드 스틸이 있다. 들어올 때부터 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지현이와 은찬이는 막상 앞에 서자 반응이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다. 은찬이는 무서워서 울상이고 지현이는 몇 번이고 다시 탈 기세다. “자, 아빠가 잡아줄게” 신이 나서 뛰어 올라가는 지현이를 안전하게 받아주는 건 아빠의 몫이다. 엄마는 아직 어린 은찬이를 달랜다. 엄마가 “우리 은찬이 뭐 갖고 싶어?”하면 앞니가 빠진 개구진 얼굴로 “히아~”하고 웃는다.

행복한 나들이는 계속 된다!

“실은 아내랑 결혼한 지 11주년 기념으로 행복한 나들이를 신청했습니다. 이벤트라면 이벤트죠. 제 아내는 저보다 돈도 잘 벌고 요리도 잘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예쁘기까지 하니, 이렇게 완벽해도 되는 건가요?” 조카의 소개로 처음 만나, 만난 지 7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한 공 과장 부부. 현주 씨는 밖에서 뿐만 아니라 내조까지 완벽하다고 한다. 그래서 공 과장 역시 뭐든지 가족들 우선이란 다. 애교 많은 막내아들과 아직 어리지만 일찍 철이 든 딸 덕분에 하루하루가 항상 즐겁다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 과장. “우리 가족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라는 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딸 지현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현주 씨의 적극 추천으로 내년 1월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을 모시고 다시 온천을 찾기로 했다. 아이들도 워낙 물놀이를 좋아해서 또 가자고 아우성이란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저에겐 정말 소중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여행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하기에 공 과장의 행복한 나들이는 특별한 어느 하루가 아니라 매일 매일이다.

최근 206회의 헌혈 기록을 달성해 눈길을 끌고 있는 세아가족이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국번디 평택공장 도금반에서 전처리 공정을 맡고 있는 이해진 사위. 얼마 전 200회 헌혈을 달성하던 날에 그가 다니는 수원역 앞 헌혈의 집에서 작은 기념파티를 열어주기도 했다.

피 끓는 이웃사랑



헌혈 206회 달성한 한국번디 이해진 사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헌혈

1990년 무렵부터 헌혈을 시작한 이해진 사위는 20여 년간 쉬지 않고 헌혈을 통해 나누는 삶을 실천해왔다. 처음 시작은 무작정 '해봐야지'하는 가벼운 마음에서 출발했다.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이상의 더 큰 의미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헌혈의 집에 들렀다가 혈소판을 구하는 긴급 상황을 접한 후 헌혈은 그에게 깊은 의미를 남겼다. 근처에 불일이 있어 왔다가 들렀던 그 날, 생사를 가르는 위급한 상황을 넘나들며 간절히 수혈을 기다리는 누군가를 위해 헌혈의 집은 비상이 걸려 있었다. 이를 지켜본 이해진 사위는 수혈을 기다리는 누군가의 모습이 눈앞에 선 듯하며, 이를 계기로 이해진 사위의 오랜 피 끓는 이웃사랑이 지금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꾸준히 이어지는 이웃사랑

회사에서 가까운 평택역 근처에도 헌혈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이해진 사위는 2주에 한 번, 일부러 수원역 앞 헌혈의 집을 찾은 정도로 헌혈에 대한 그의 애착은 남다르다. 평택 쪽은 혈액 채취 정도만 가능한 소규모 지점이어서 규모가 좀 더 큰 수원역까지 방문하고 있다. 더구나 AB형 혈소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더욱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그를 지켜본 가족들이나 주변의 동료들은 처음에 "너무 많이 하지 마라"며 걱정이 담긴 시선을 보내곤 했었다.

"저라고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초창기에는 바늘이 살 속을 파고드는 순간이면 무척 긴장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만성이 되어 괜찮습니다"라며 속내를 털어놓는다. "단지 반팔을 입는 여름에 팔의 주사바늘 자국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신경 쓰일 뿐"이라며



이처럼 헌혈에 애착을 갖는 이유를 "헌혈을 통해 자신이 건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헌혈을 하고 싶다"는 이해진 사위는 거창한 봉사활동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을 통해 계속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생각이다.

헌혈 달인의 따뜻한 마음

이 같은 헌혈 실천이 이어져 이해진 사위의 헌혈에 대한 남다른 애착은 이제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그의 신념이 그를 '헌혈 달인'으로 이끈 것이다. 헌혈을 하고 받은 헌혈증 206장은 그의 신념대로 가까이에 있는 혈액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됐다. "생각했던 것보다 몸에 혈액이 생성되지 않아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주로 회사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의 가족들 중 아픈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어요"라며 그동안 모은 헌혈증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는 무엇보다 "간이식 수술을 해야 했던 친구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말한다. 헌혈증 없이 수혈을 하려면 그 비용도 꽤 만만치 않다. 당장 자신에게는 크게 쓸모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까운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진 사위는 헌혈을 통해 더욱 깨달았



다고 한다. 아이들이 좀 더 자라면 아이들과 함께 가서 헌혈을 하고 싶다는 아주 소박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그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베푸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다. 그 실천이 바로 헌혈이라고 생각한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헌혈로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말한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과 그러한 마음을 함께 실천하고 싶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좀처럼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들에게 "헌혈은 몸의 혈액을 순환시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쯤 시도해 보길 빌어요"라는 말을 전했다.



11월 25일 오전 9시 세아베스틸 노사임직원 20여 명이 군산시 여성센터에 들어선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던 여성센터 여성봉사자들도 분주하게 놀리던 손을 잠시 멈추고 반갑게 이들을 반긴다. 세아베스틸 임직원들이 아침부터 군산시 여성센터를 찾아온 까닭은 김치를 담기 위해서다.

“이웃들에게 나눠줄 김치 담가요”

세아베스틸 임직원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이웃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다

고무장갑과 장화, 앞치마로 채비를 단단히 한 세아베스틸 임직원들은 전날 소금에 절여두었던 배추를 나른다. 오늘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위해 야외에 길게 늘어선 작업대에 배추를 올려놓고 각종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며 김장김치 담그기 준비를 마쳤다. 한쪽에서는 여성봉사자들이 마지막으로 양념의 간을 맞추고 있고 여러 사람의 평가를 거쳐 “이만하면 됐다”는 동의를 얻어냈다. 드디어 양념을 담은 그릇들이 곳곳에 놓이고 본격적인 김장 속 넣기가 시작된다. 모두들 능숙하게 김치를 먹을 수는 있지만, 막상 김치를 담가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집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집사람이 알면 서운할 수도 있겠다”며 팔을 걷어 부친다. 팔과 옷이 양념 범벅이 되고 있지만, 점점 김치 담그는 재미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옆에선 여성센터 여성봉사자들과 군산시장 부인까지 가세해 주부들의 노하우가 깃든 배추 양념 제조법을 전수해주느라 열심이었다.

김치에 사랑을 싣고

군산시 여성센터에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김장김치 담그기를 실천하고 있다. 군산시 여성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 취지에 공감한 세아베스틸이 김장에도 남자들이 필요한 일이 많으며 이번 행사처럼 규모가 큰 경우라면 더욱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김장김치 담그기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임직원들은 3일에 걸쳐 시간을 쪼개 김장김치 담그는 일을 도왔다. 먼저 23~24일 이틀간은 현장관리자들이 중심이 되어 배추를 씻고 절이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25일은 노사임직원들이 나서 양념을 버무리고 15kg씩 쪼개어 포장한 후 직접 준비한 이불 한 채를 각각 얹어 독거노인과 이웃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며 김치를 배달했다. 이번 행사에서 담근 김치는 총 2,500포기. 반나절 동안 열심히 양념을 버무리었지만 남아있는 배추는 여전히 많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에는 이웃들에게 전해줄 김치상자가 높이 쌓여갔고, 김치를 담그는 직원들의 손놀림도 더욱 바빠 움직였다.

이웃사랑,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 임직원들은 김치를 담그면서 자연스레 배추 값 폭등 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때로 젊은 직원이 나서 노래를 열창하며 피로를 달래주기도 하여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단순히 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일이라 생각돼 즐겁다”며 “허리는 좀 아프지만 오늘 행사를 통해 그동안 고생했을 아내의 노고도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한다. 또 “맛은 보장할 수 없어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최선을 다해 만든 김치를 이웃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한다.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는 경제적 빈곤 탓에 소외받고 있는 이웃들, 홀로 겨울을 지내야 하는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여 매년 여러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여성센터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세아베스틸의 참여로 김장김치와 더불어 이불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은 배가 됐다. 처음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된 세아베스틸의 직원들은 “김장을 하며 이웃을 생각할 수 있었고, 가족들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됐다”며 “담근 김치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소개했다.



세아제강 포항공장에서는 올해도 따뜻한 온정을 배달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연탄 구입에 필요한 모금도 다소 수고롭더라도 직원들이 직접 정성을 다해 손수 마련했다. 이 행사가 반복될수록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는 직원들은 매년 이렇게 참여가 늘어가고 정성과 사랑도 두터워지고 있다.

“따뜻한 온정을 배달합니다”

세아제강 포항공장 사랑의 연탄배달



작은 마음들이 모여 큰 사랑을

세아제강 포항공장에서는 매년 12월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선다. 포항공장 임직원들 모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뜻 깊은 행사로 2007년 처음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3년째가 되는 2010년 올해에는 어엿한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자리를 잡아 직원들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올해도 연탄 구입금 마련은 포항공장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항공장에서는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공장 내에서 틈틈이 가꾸어 수확한 모과를 직원들에게 판매했다. 여기서 1,564,000원이 모였다. 또 여러 사우들이 지갑을 열어 선뜻 기부금을 내주었다. 주임회 50만 원, 전기정비1만 50만 원, 다물단 78만 원, 박기중 사우 20만 원, 구덕본 사우 10만 원, 2공장 열처리 공정 10만 원 등 사우들의 손길 하나 하나가 모인 기탁금과 모과 판매액의 총액은 3,744,000원에 이르렀다.



이 모금으로 포항공장은 몇 년째 인연을 맺어온 11가구의 이웃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추가로 추천을 받은 15가구 등 총 26개 가구에 전달할 연탄을 구입했다. 각 가정에 300장씩 모두 7,800장의 연탄은 이번 겨울에도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길 바라는 포항공장 직원들의 소망과 함께 각 가정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였다.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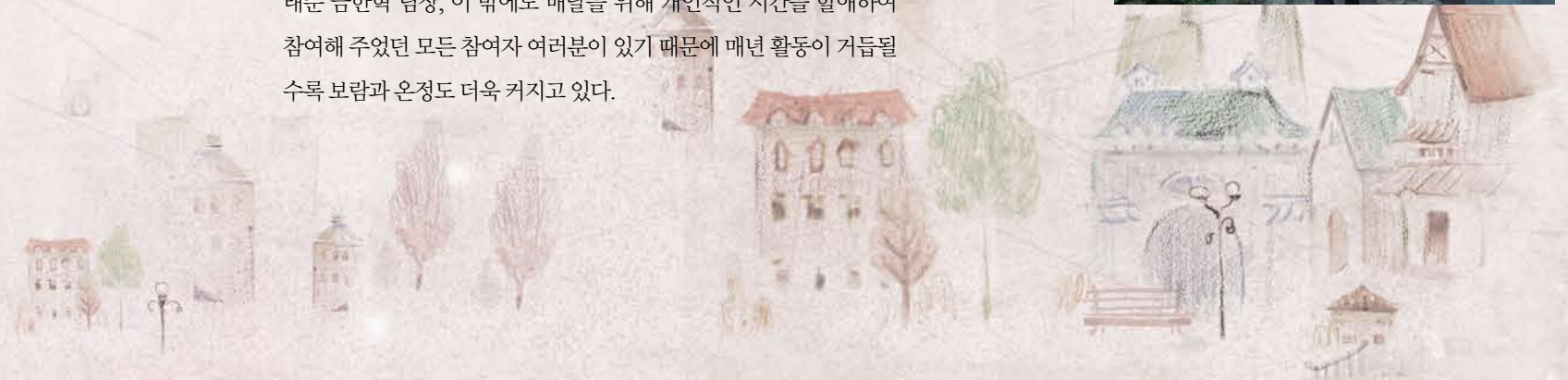
연탄 배달은 11월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에서는 18명의 사우가 자원봉사를 신청하여 포항 내의 학산동과 득량동에 위치한 대상 가정에 연탄을 배달했다. 2차에서는 17명의 사우가 자처하여 우현동과 용흥동 일대의 가정에 연탄을 나랐다.

배달을 위해 아침 9시 30분 정문에서 만난 사우들은 트럭에 가득 연탄을 싣고서 이웃들이 있는 곳을 향해 출발했다. 언덕이 심하고 길목이 좁아 한 장 한 장 연탄을 내려 나르는 일은 보기보다, 그리고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다리도 아프고 팔이 저리지만 조금만 참자.” 사우들은 스스로를 달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위해 힘을 나눴다. “내 조그마한 힘을 나눠줌으로써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가벼웠다고 사우들은 전한다.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나누어주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참여했던 사우들은 칼국수와 만두로 허기를 달랬다. 오늘의 힘들었던 기억은 사라진 듯 모두의 입가에서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나누면 나눌수록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봉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기회였다”며 기금을 모으기 위해 언제나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는 사우들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그 중에서 특히 매년 잊지 않고 연탄 1,000장을 기부하는 세아제강의 기부천사 김무술 사우와, 연탄 나눔 봉사를 위해 잔돈을 모아두었다가 490장을 보태준 금한혁 팀장, 이 밖에도 배달을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해 주었던 모든 참여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활동이 거듭될수록 보람과 온정도 더욱 커지고 있다.



Group News

淸凡 진태하 교수 회호 제막식 개최



12월 6일 세아홀딩스 대회의실에서 진태하 인재대 석좌교수의 세아제강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친필 회호 제막식이 있었다. 세아제강 및 세아홀딩스 임원 15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공개된 진태하 교수의 회호 내용은 세아제강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더 큰 뜻으로 미래를 도모함과 더불어 창업회장의 정신과 업적 또한 잊지 말아야 함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淸凡 진태하 교수의 회호를 담은 액자는 세아홀딩스 대회의실에 진열되어 있다.

鴻圖世展

祝世亞製鋼創立五十周年併永年懷念創業會長之海巖大人其精神與功積也

크게 도모하는 뜻을 세계로 펼치다.

세아제강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고, 아울러 창업회장 海巖 대인의 그 정신과 쌓으신 공을 영원히 가슴에 지닐 것을 빌다.

세아 50년사,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우수상 수상



세아그룹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세아 50년사>가 1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사보협회 주최로 열린 2010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사사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한국언론재단 등 30여 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로 국내에서 발행되는 인쇄물, 광고 등의 작품으로 기업문화 발전과 작품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세아제강 창립부터 시작하여 세아그룹의 어제와 오늘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세아 50년사>는 약 1년 8개월 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올해 세아제강 50주년 창립 기념일에 맞춰 발간됐다.

세아제강

2010년 영업역량 강화과정 교육 시행

팀장을 제외한 세아제강 모든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2010년 영업역량 강화과정' 교육이 경기도 용인에서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3차수에 걸쳐 진행됐다. 2010년 영업역량 강화과정은 2008년 세일즈커뮤니케이션, 프리젠테이션 역량을 중점으로 시행했던 1기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협상 및 마케팅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영업역량 강화과정은 영업 전반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교육과정이다.

포항공장, 노사합동 안전캠페인 실시

11월 4일 세아제강 포항공장에서는 노사가 합동하여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노사합동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원 개개인의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 최우선 위주 작업 정착을 위한 노사 간 안전사고 예방 의지를 공표하고,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협착 및 전도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작업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포항공장의 무재해 공장 달성을 위해 하재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정연철 노조위원장, 임원, 각 팀장 및 단위공장장 등 총 33명이 동참했다.

포항공장, 소그룹 자랑대회 개최

포항공장은 10월 22일 혁신 소그룹 자랑대회를 개최했다. 10개의 업선된 소그룹이 참가한 이번 소그룹 대회는 'CHAMP21'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소그룹 활동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부여하고, 우수 소그룹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포항공장 전체에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단합 도모를 위해 추진됐다. 참가팀의 구성

원들은 팀별로 주어진 20분을 위해 오랜 기간 아이디어를 모으며 연습하는 과정에서 더욱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관팀장 워크숍 실시



세아제강은 11월 19일 군산 강관2공장에서 강관팀장 워크숍을 실시했다. 포항공장, 강관2공장을 비롯해 본사의 팀장들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김현기 군산 강관2공장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2011년 경영 계획 및 투자전략을 협의하고 각 공장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세아베스틸

현대중공업 Forged Shell 납품 완료



세아베스틸은 11월 5일 현대중공업에 화공용 대형 Forged Shell 제품의 납품을 완료했다. 화공용 대형 Forged Shell은 지난 5월 수주하여 5개월에 걸쳐 제작됐으며, 국내 최초로 직경 약 7,000mm(제품 Size 직경 6,500mm 이상)에 달한다. 대형 Forged Shell의 성공적인 납품을 계기로 화공 Plant 시장에서의 세아베스틸 가치가 더욱 높아져,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기술력과 품질로써 향후 원자력 시장 진출 전망을 밝게 했다.

모기업 협력업체 상생협력 파트너십 협약 체결

11월 3일 세아베스틸에서는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협력회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기업 협력업체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체결



해 안전보건지원체제를 구축, 산재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향후 추진되는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활동 구축 지원과 공단의 기술 및 교육 지원에 따라 매 6개월 마다 성과를 측정하여 우수업체를 포상할 예정이다.

'도전정신과 자기혁신' 교육 실시



세아베스틸은 3~4급 사원 148명을 대상으로 한 '도전정신과 자기혁신' 교육을 실시했다. 10월 25~26일, 11월 8~9일 총 2차례에 걸쳐 한국표준협회 안성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과 조직원으로서의 응집력, 자긍심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제57년차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 회의 실시



11월 17일 세아베스틸에서는 제57년차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 회의와 함께 제9대 노조위원장 취임식이 각각 본관 교육장과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렸다. 1부에서는 노동조합 임원 인준과 57년차 사업계획 수립, 예산심의 및 의결, 9대 집행부 집행 및 집행방향 논의 등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이승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만재 수석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본부 한항엽 의장 외 내빈과 대의원이 참



석한 가운데 설승욱 제9대 노조위원장의 취임식과 모범조합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해외 산업시찰 시행



세아베스틸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 대련과 북경지역의 산업시찰을 실시했다.

10명의 기능직 사원들

로 구성된 이번 해외 산업시찰단은 동북특수강, 포금강관 등을 돌아보며 중국 경제의 지력을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문화와 성공적인 경영혁신 사례를 살펴보았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군산시 기탁

12월 16일 세아베스틸은 연말연시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전 사원이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0만 원과 물품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기탁한 성금과 물품은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군산 지역 내 차상위계층(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빈곤층)이 옷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문돈신 군산시장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변함없는 나눔 실천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세아특수강

2010년 노사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개최

세아특수강은 11월 6일 한국폴리텍6대학 포항캠퍼스에서 이석호 대표를 비롯한 포항공장 전 임직원 및 가족이 참여하는 2010년 노사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명기 포항공장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각종 구기종목 경기와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등으로 노사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이석호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많은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세아특수강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한 모든 임직원 및 가족들의 노력을 격려

하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심기일전하여 회사와 가정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방문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우건도 충주시장을 비롯한 도·시 관계자들이 10월 22일 세아특수강 충주공장을 찾았다. 세아특수강과 충주시는

지난 9월, 2014년까지 충주시에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은 투자진행 현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회와 세아특수강 증축 및 생산현장을 시찰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세아특수강이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충주공장, 추계 등반대회 실시



10월 31일 세아특수강 충주공장은 목표 달성을 위한 단합을 다지고자 추계 등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등반대회는 충주 소재의 월악산

제비봉 등정을 목표로 충주공장 전 직원이 참가했으며, 이를 통해 2011년 목표 달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1공장 증축 및 2공장의 성공적인 가동을 위해 모든 직원이 각오를 새롭게 했다.

한국번디

평택공장, 윤리경영교육 실시

한국번디 평택공장은 11월 10일 구성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지속적인 윤리경영 실행을 위해 기업사회연구원 양세영 원장을 초빙하여



시 일회성에서 탈피해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한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리경영교육을 실시했다. 윤리경영의 의미를 이해하고, 필요성을 공감하게 했던 이번 교육을 통해 평택공장은 사회공헌을 위한 활동 역

광주공장, 新노사문화 구축 위한 노사워크숍 개최



영환경 변화에 따른 성공 전략을 알아보는 외부강사 교육을 비롯해 공장장 교육, 근로시간 면제 제도 등 노사관계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공정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더불어 웃음이 깃든 아름다운 광주공장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가 Win-Win할 수 있는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공장, 작업장 혁신 우수기업 인증 취득



중소기업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본 대회는 기업의 작업장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되고 있으며, 광주공장은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더욱 더 발전적인 작업장 혁신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5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



한국번디는 11월 30일 47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5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2002년 470만 불로 수출을 시작한 한국번디는 2010년 6200만 불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번디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중불소코팅관과 냉장고 핫파이프용 특수표면처리 제품, 저전력 소모형 터빈 콘텐서 등을 중국, 이란, 러시아 등에 공급하고 있다.

세아에샵

‘세아드림’ 풀잎마을 봉사활동 실시



10월 16일 세아에샵 사내 봉사단인 ‘세아드림’이 창원 신촌동 소재의 사회복지재단 풀잎마을로 출범 이후 첫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총 14명의 직원이 참여해 풀잎마을에 거주하는 1급 지체장애우들의 목욕을 돕는가하면, 100여 명의 장애우들의 기저귀, 수건, 의류 등 기타 세탁물을 빨랫줄에 널거나 건조된 세탁물을 방마다 수납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말은 통하지 않아도 웃음으로 대화하면서 함께 땀 흘리는 보람이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아메탈

세아메탈, JIS 표시인증 획득

세아메탈은 11월 11일 창원공장과 함안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 5종에 대해 일본공업규격(JIS) 표시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JIS



NEWS

Vol.330
2010 11 | 12



표시인증 품목은 창원공장의 스테인리스 강선(JIS G 4309), 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JIS G 4314), 냉간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JIS G 4315) 등 세 종류의 제품과 함안공장 에서 생산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강선(JIS G 4309)과 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JIS G 4314) 등 두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 이번 인증의 획득으로 세아 메탈은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게 됐다.

한마음전진대회 실시



세아메탈은 공장 별로 11월 6일 창원공장, 10 월 24일 원주공장이 각 각 한마음 전진대회를 실시했다. 창원 정병산 과 대관령 선자령에서 진행된 이번 한마음 전진대회를 통해 세아메탈 직원들은 전 직원 이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한다면 무엇이든지 성취해 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확인했다.

강남도시가스

창립 제26주년 기념행사 실시

11월 19일 강남도시가스에서는 전 임직원 및 고객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26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임진호 대표 는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묵묵히 자 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맡은 분야에서 헌신을 다한 덕분에 오늘의 강남도시가스가 있을 수 있었다”며 “26년간 회사 성장에 함 께 해온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모범사원 시상과 더불어 고객센터 직원에 대한 친절 상과 안전관리상 시상식, 우수 협력업체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제10차 2N운동 추진 결의대회 실시



강남도시가스는 11월 25일 본사 강당에서 제 10차 2N운동 추진 결의 대회를 열었다. 임진호 대표는 대회사에서 제

10차 2N운동의 목표인 무사고 3,660일, 무재해 7배수 달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회사와 혼연일체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 본에 충실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무사고, 무재해 목표달성은 물론 강남도시가스만의 새로운 안전문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세아이앤티

터보사업부, 소방훈련 실시



터보사업부는 11월 18일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 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서는 소화 기, 옥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사용방법을 익히고 실습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조치를 습득했다. 훈련 과정은 직 원들이 화재 진압에 대한 체험을 함으로써 화재의 경각심을 일깨 우는데 도움이 됐다.

플랜트사업부, ASME 인증 갱신

플랜트사업부 울산공장에서는 10월 27~28일 동안 ASME Renewal 심사가 진행됐다. ASME 심사 Team의 적합 의견에 따라 ASME 갱신에 대한 Certificate가 연장 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기존 1공장(“U”, “S”, “PP”, “U2”)과 2공장(“U”)으로 분리됐던 것을 울산공장으로 단일화하여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심사일정을 단축 함과 동시에 관리문서가 축소됐다. 특히 2공장의 경우, “S”, “PP”, “U2” 인증을 추가로 취득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사우동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세아인들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세아제강

●입사**정재권 본사 판매기획팀 | 이대희 본사 실수요팀 | 도영원 본사 실수요팀 | 이세영 본사 수출2팀 | 박정완 본사 수출2팀 | 안윤진 포항 품질경영팀 | 송 정훈 포항 생산기술팀 | 김근호 창원 생산팀 | 최선웅 군산 생산2팀 | 임채훈 군산 생산2팀 | 한병호 군산 생산2팀 | 이금송 강관2공장 품질경영팀 ●결혼**문 형철 본사 컬러강판영업팀 | 류태욱 포항 생산1팀 ●출산**방제현 포항 설비보전팀 | 최영훈 포항 업무지원팀 | 최현민 포항 물류팀 | 문상목 군산 생산2팀 | 배민오 부산대리점팀 ●조의**김숙이 본사 수출2팀(시부) | 김기군 본사 컬러강판영업팀(부친) | 김창태 포항 생산2팀(장인) | 서현철 포항 생산2팀(조모) | 김 기완 포항 설비보전팀(모친) | 김영일 포항 설비보전팀(장인) | 김택광 창원 생산팀(장인) | 강영수 창원 품질경영팀(부친) | 임재훈 군산 설비팀(부친) | 문용인 군산 생산1팀(모친)

세아베스틸

●결혼**김정훈 연주팀 | 임종현 특)생산관리팀 | 고진성 압연설비팀 | 정재훈 제품연구그룹 | 이영란 회계팀 | 박종석 특)생산관리팀 | 조민연 제강설비팀 ●조의**조현구 소형압연팀(부친) | 박민영 대형정정팀(부친) | 박민재 소형정정팀(부친) | 강현준 대형압연팀(부친) | 이 현 품질보증팀(부친) | 김중희 연주팀 (부친) | 위병열 제강팀(부친) | 손태현 품질보증팀(모친) | 김문수 대형정정팀(모친) | 이원노 수입검사팀(장인) | 하현준 안전보건팀(장인) | 정인정 주조팀(장인) | 김남민 품질보증팀(장인) | 권병희 소형정정팀(장인) | 김응규 대형정정팀(장인) | 유점배 대형압연팀(장인) | 심재선 소형정정팀(장인) | 송원석 특)생산관리팀 (장모) | 최영태 소형정정팀(장모) | 임영희 2차가공팀(장모)

세아특수강

●입사**최진영 포항 생산팀 | 안대성 포항 생산팀 | 최효진 충주 생산팀 | 남기연 충주 품질보증팀 | 김해인 충주 품질보증팀 | 이병호 충주2공장 생산팀 | 배 선현 충주2공장 생산팀 | 이현우 충주2공장 생산팀 | 최수남 충주2공장 생산팀 | 심효섭 충주2공장 생산팀 | 김진호 충주2공장 생산팀 | 이민학 충주2공장 생 산팀 | 김춘기 충주2공장 생산팀 | 임종민 충주2공장 생산팀 | 홍우중 충주2공장 생산팀 | 김동기 경영기획팀 | 김경우 경영기획팀 | 김수지 경영기획팀 ●결혼**이정애 충주 지원팀 | 정태화 충주 생산팀 | 김종훈 포항 생산팀 | 김현배 포항 업무지원팀 | 유성원 수주관리팀 ●출산**이상민 포항 생산팀 | 황영 기 포항 생산팀 | 허 민 포항 생산팀 | 문병갑 경영기획팀 | 김성욱 봉강판매1팀

한국번디

●입사**조요환 평택 생산물류팀 | 김재원 광주 생산팀 ●결혼**오남석 평택 생산팀 | 최재오 광주 생산팀 ●조의**장형래 광주 생산팀(장인) | 김태갑 광주 생산팀(장모) | 손민태 광주 품질경영팀(형님)

세아에샵

●입사**김영환 기초연구팀 ●결혼**이형준 생산팀 ●출산**정원정 제품개발팀 | 김소영 생산팀 | 이성훈 생산팀 ●조의**나용봉 생산팀(모친) | 이상엽 생산팀(부친)

세아메탈

●입사**서현일 창원 생산혁신팀 | 조진현 창원 R&E팀 | 이세종 원주 생산기술팀 | 이재민 원주 생산기술팀 | 장대한 원주 생산기술팀 | 김경섭 원주 생산기 술팀 | 조현준 원주 생산기술팀 ●결혼**한귀철 설비환경팀

강남도시가스

●결혼**현상만 공급지원팀 | 선화영 공급지원팀 ●출산**유명진 공급관리팀

세아이앤티

●입사**허종길 터보 생산팀 | 이종대 터보 생산팀 | 최홍만 터보 생산팀 | 김효준 플랜트 ENG2팀 | 이창현 플랜트 영업팀 | 김민재 플랜트 ENG2팀 | 우선규 플랜트 ENG2팀 | 한 번 플랜트 ENG2팀 | 김진주 플랜트 PM팀 | 정주용 플랜트 ENG2팀 ●출산**구영근 플랜트 기술팀 ●조의**이상용 플랜트 영업임원(모친)

Quiz |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다른 사진에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 주세요.
정답표시는 엽서에 해주세요.

원본



문제



*지난호 퀴즈 정답



*지난 퀴즈 당첨자

노재영 대구 중구 남산3동
서상태 포항 북구 두호동
장옥자 포항 북구 우현동
유희주 서울 양천구 목5동
최현정 김해 장유면 대청리
구중엽 서울 강동구 천호4동
신은서 포항 남구 대잠동
강하연 세아제강 수출1팀
김영희 대구 남구 봉덕3동
조용철 포항 남구 해도동

*〈세아가족〉사보기자

박승균 세아제강 인력개발팀(본사) | 최영훈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 고재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 임아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 | 선민석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강관2공장) |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 |
이동진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서울) | 이태원 세아특
수강 공장혁신팀(본사) | 박수연 한국번디 전략기획팀
| 손은숙 세아에스 총무팀 | 김중호 세아메탈 재경팀 |
이상기 세아이엔티 업무지원팀 | 이근기 강남도시가스
업무지원팀 | 권기범 세아로지스 재경기획팀 | 김승렬
드림라인 경영기획팀

*사보참여 안내

〈세아가족〉사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세아인들의 이
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특별한 행사나 사연
이 있는 사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 바람, 직접 참여
를 원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앞으로 〈세아가족〉은 세아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아인들을 위한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의 : cmk@seah.co.kr / 02-3783-8163

SeAH Reader's

곳곳에 세아가족들의 정이 녹아있는 듯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보였습니다. 특히
재미있게 보았던 칼럼은 저와 같이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장학생 출신으로 공인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이수현 학생이 쓴 글이었습니다. 공인회계사를 꿈꾸며 공부
하는 제게 롤 모델을 보는 것만 같아서 마음에 깊게 와 닿았습니다.

구중엽 서울 강동구 천호4동

창립 50주년 기념호라서 그런지 사보가 풍성한 가을 들판 같았습니다. 모든 글들
이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당연히 제 남편의 글이 제일 좋았습니다. 知天命(지천명)
당신, 사랑해요! 이번 사보를 통해 부산파이프 시절 처음 세아와 만났던 힘들었던
옛 시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장옥자 포항 북구 우현동

〈50살 세아에게 보내는 편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일하신 선배님들의
편지를 보며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50주년을 맞이할 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에 세아와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강하연 세아제강 수출1팀

철의 길 50년, 세아제강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철강대국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강관을 만들고 새로운 철에 도전해온 세아제강의 50년,
그 열정과 도전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아제강은 한해한해 더욱 단단하게 세계철강의 중심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Steel Innovator

SeAH 세아제강



1993, 부산광역시경제자유구역 지정

1997, 국내 최초 강관 수출

1998, 1999 수출탑 및 금탑산업훈장 수상

1999, 국내 최초 단열이중관 생산

1993, ISO 9001 품질보증시스템 인증 획득

1995, ISO 9002 품질보증시스템 인증 획득

1996, 주식회사 세아제강으로 상호 변경

1997,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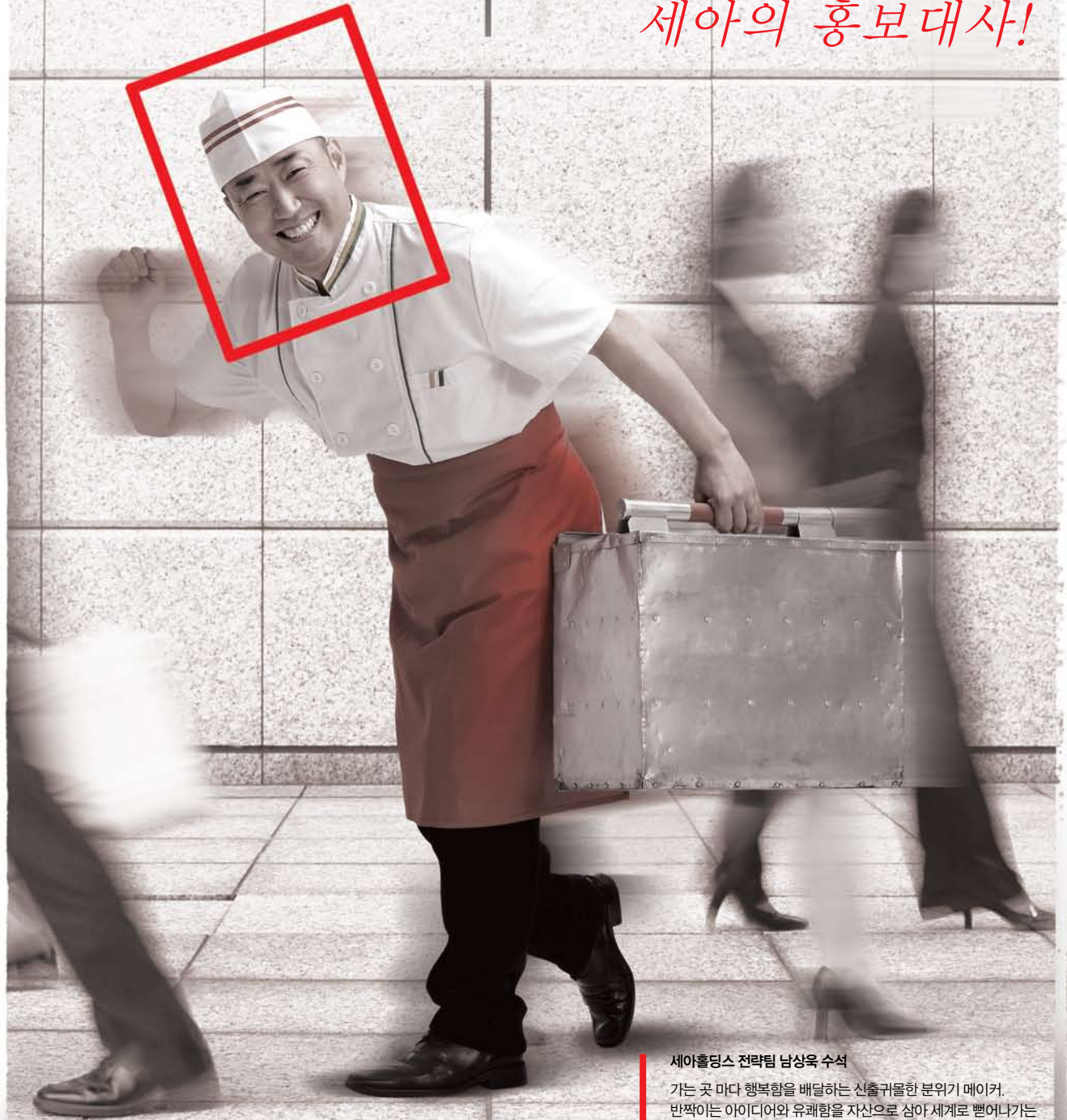
2005, 2억불 수출탑 및 동탑산업훈장 수상

2007, 은탑산업훈장 수상

2008, 3억불 수출탑 수상

2009, 4억불 수출탑 수상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세아의 홍보대사!



세아홀딩스 전략팀 남상욱 수석

가는 곳 마다 행복함을 배달하는 신출귀몰한 분위기 메이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유쾌함을 자산으로 삼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아의 든든한 전략가이다.